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정상구 (청주시 주성동)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된 집안의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동생이 경영하던 주유소에서 새롭게 출발한 내게 있어, 사회는 더 이상 순탄하던 직장인 시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어렵다는 것을 소문으로 안 이들은 내가 그 어떤 부자이라도 해 줄까 하는 염려에서인지 수화기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멀고 작아져 갔습니다. 연일 찾아오는 채권자들과 원금 기준의 해법을 놓고 때로는 아귀다툼을 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며 해결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꿈인지 생사인지 모를 정도로 점점 힘에 부쳐가더니, 끝내는 어머니의 산소까지 경매로 넘어가 이를 다시 찾아오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

생의 출가는 이처럼 피눈물나는 시련과 역경을 겪은 뒤 얻은 부처님의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3남매를 둘째 형인 우리 부부에게 입양시킨 동생은 무더운 어느 여름날 눈물 속에 속세를 떠나, 지금은 확인의 스님이 되어 부처님 전에 열심히 용맹 정진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닦는데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세차를 할 때 오시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신바람이 나고 희망이 생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음악, 미술, 역사, 문학, 철학 등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조화시키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불교에서는 화장실을 '근심을 없애는

해회처(解悔處) 가는 길 <하>



정상구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세차장 이름은 '과거의 고통과 후회를 풀어준다'는 의미의 '해회처'다.

습니다. 또한 향수를 달래 줄 수 있고 신바람이 절로 나는 음악을 편집하여 이를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세차를 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닦는데 어느 분께서 차 안에서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세차를 할 때 어두운 등잔불 옆에서 바느질하시는 어머니의 사진과 뒷전에 들려오는 양주동 작사의 어머니 마음 노래 소리에 지난 시절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어떤 아련한 추억이 그리움으로 나타난 듯 보였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사람을 울리세요?" 라고 나에게 흐릿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던 손님은 이순이 님이었습니다. 중후한 인품의 노신사 분이었습니다. 감성이 열어질 연세인 어르신인 두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나는 가슴 한켠이 뚫어져라 왔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가시라는 제말에 다음에 또 오신다 하시며 떠나가는 손님을 배웅할 때, 주인인 나도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으로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지요. 세차는 비록 자동차를 닦는 아주 작고 단순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닦을 때 유년시절 고향에서 뛰놀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녹인 다음, 나이아가라 폭포의 떨어지는 폭포수에 녹여진 그것을 던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일상의 피로를 많



이 비워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비워진 자리에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함께 동해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의 에너지를 한껏 채워 본다면 희망과 신바람은 절로 생겨나지 않을까요?

세차를 하며 얻어진 희망과 신바람으로 천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 충북 진천군 소재의 농다리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삶의 행복지수는 부처님의 자비심만큼이나 무한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차방법을 '마음까지 닦아드리는 세차법'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흐뭇해 합니다.

오늘도 세차장 해회처에서 세차를 하신 후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손님들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끝)

킬레이 수영일기 <하>



백유진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고(苦)에 대해서는,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졸업하기 전의 한 사건이 기억난다. 가을 어느 날이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 머리가 새하얗고 눈빛이 험형하던 아버지들 둔 그 친구가 1주일 뒤에 결혼한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 축하해." 그러나 돌아서서는 걱정이 살면서 되었다. 그 당시 나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체중이 많이 빠져 남들이 보면 병든 닭같이 보였다. 고등학교 때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는 남들에게 보여 주기가 싫었다. '가야 한다.' '가고 싶지 않아.' '가야 해.'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다. 엄청난 심적 고통이 도래하였고, 그와 함께 스트레스성 위 십이지장궤양이 생겼는지 명치부위가 쥐어짜듯이 아파왔다. 어찌 할 방법이 없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오직 고통 뿐이었다.

기분이 무아다. 무아가 바로 열반이다. 절대적 자유다, 아니 자유란 절대적인 것이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이런 절대적 느낌에 머물러 있었다. 광풍이 한번 휘몰고 지나간 것 같았다. 따뜻한 훈풍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게 허수아비 같은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쥐어짜듯 아픈 명치부위도 씻어낸 듯이 사라져 버렸다. 이 무슨 일인가 어안이 병방한 가운데, 결혼

연기법, 지식아닌 마음으로 이해 통찰의 반복으로 고요한 생활

결혼식이었다. 그 절대적인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서가에 놓여 있던 작은 책자 하나를 집어 들었다. '아잔 차' 라는 태극 스님이 서양 대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법문한 내용을 '고요한 소리'에서 옮겨 옮긴 것이었다.

그날 손 가는 대로 책장을 들추는 데, 앞서 읽었던 누군가가 "모든 것은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라는 구절에 붉은 색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이 갑작스럽게 확 열린 것 같았다. 머리방망이처럼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럴 수가... 그렇구나. 옛날에도 의외로 알고 있었던 연기법에 대한 법문을 영어로는 "모든 사물은 조건지어져 있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다.

수없이 연기법에 대한 해설과 법문을 들었던, 지식으로 이해한 것은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아무튼 유리컵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었다. 그전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법칙으로서의 유리컵의 깨어짐 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로서의 유리컵이었다. 그래, 연

식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참석하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고요함과 따뜻함이 유지되었다.

후에 그 고통이 마치 일종의 활구(活句) 공안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중에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인도 명상가의 책을 원서로 접하게 되면서, 그가 얘기하는 '슬픔이나 위기와 함께 그대로 있기', '모름의 상태로 있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슬픔이나 고통에서 도피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던 것이 극한에 이르러 폭발하는 듯한 성질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흥기가 가시고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도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모르고 있었다. 또 통찰에도 깊이와 수준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그 체험을 놓고 처음 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리라. 그래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그것이 큰 자산이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진리를 알게 해주신 주인공에 감사할 따름이다. (끝)

동생 경영하던 주유소 인수해 새출발

어머니 산소까지 경매... 눈물의 세월

'마음까지 닦아 드리는 세차' 희망 찾아

습니다.

가을결기가 끝난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해동안 농사일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동생과 함께 두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인 영수사엘 갔습니다.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고 하룻밤을 산사에 머문 우리 형제는, 이튿날 아침 공양시간에 선림사에서 오신 법흥 스님 일행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흥 스님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법흥 스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가 걸어온 눈물로 얼룩진 딱한 사연을 다 들으신 다음 훌쩍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동생을 제자로 뽑아주셨습니다. 동

생의 출가는 이처럼 피눈물나는 시련과 역경을 겪은 뒤 얻은 부처님의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3남매를 둘째 형인 우리 부부에게 입양시킨 동생은 무더운 어느 여름날 눈물 속에 속세를 떠나, 지금은 확인의 스님이 되어 부처님 전에 열심히 용맹 정진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닦는데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세차를 할 때 오시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신바람이 나고 희망이 생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음악, 미술, 역사, 문학, 철학 등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조화시키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불교에서는 화장실을 '근심을 없애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해우소(解憂所)라 부릅니다. 그 해우소란 이름에 착안하여 세차장 이름을 '해회처(解悔處)'라 지었습니다. '해회처'는 일상의 스트레스는 신바람으로, 나와 같이 시련과 역경에 처한 분들의 우울함은 희망으로 바꾸어 드리고 싶은 작은 소망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릴 적 뛰놀던 고향의 그림,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 어두웠던 등잔불 옆에서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모습의 사진과 양주동 작사의 어머니 마음 노래를 통해 서 힘차게 떠오르는 일출 사진, 그리고 천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 충북 진천군 소재의 농다리 사진을 세차장에 설치하였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포 담이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희로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마하몰 갑신년 설맞이 특판기획전

구매고객 모두에게 고급원목단주를 증정합니다. 무료배송 (단 3만원이하 제품은 배송료 4,000원 별도)

[기간] 2004년 1월 14일 ~ 2월 13일까지 (딱, 한달간)

희담석 스님용 보료 (15%할인) 판매가: 2,800,000원 특판가: 2,380,000원

희담석 방석 (20%할인) 판매가: 198,000원 특판가: 158,400원

희담석 찜질팩 (20%할인) 판매가: 38,000원 특판가: 30,400원

희담석 찜질팩 (20%할인) 판매가: 38,000원 특판가: 30,400원

37°氣배개 37°氣 제품 완개더 100개안정 판매

37°氣방석 37°氣배개 - 일반 메모리폼 배개가 사십니다

왕토달마 100개안정 판매 판매가: 198,000원 특판가: 98,000원

달마원목시계(원형, 팔각형) 판매가: 65,000원 특판가: 각 33,000원

의담석 체험사례 <경안스님<전남 덕양사> 최선술 하거나 혹은 경사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지질로 하여 오랫동안 안이기가 있을

37°氣배개 - 일반 메모리폼 배개가 사십니다 판매가: 69,000원 특판가: 60,000원(2개) 색 상: 아이보리, 하늘색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하몰 주문 전화 02)732-1520